

백신 접종 수송버스 투입

전주시, 8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위해 접종 완료시까지 38대 운행

75세 이상 노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송버스가 운행된다. 이는 스스로 이동할 수 없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접종센터 방문이 힘든 노인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전주시는 75세 이상 노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오는 8일부터 접종 완료시까지 수송버스 38대를 동별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수송버스는 화산예방접종센터(화산체육관)와 동 주민센터를 오가게 되며, ▲서신동 ▲평화2동 ▲진북동 등 접종 대상자가 많은 곳은 1일 4회, 그 외 32개 동은 1일 2회 운행된다.

백신접종에 동의한 노인들은 추후 동에서 개별적으로 취해지는 접종일시 예약 시 수송버스 탑승 여부를 정

한 뒤 탑승시간과 장소 등을 공지 받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탑승자의 승·하차와 방역 등을 지원할 인력을 배치하는 등 동별 운송단을 꾸려 각 동장의 관리 하에 접종자의 안전한 내원 및 귀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버스 탑승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45인승 버스 1대 당 20여 명만 탑승시키고, 발열체크 및 소독 등 방역대책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75세 이상 노인 접종은 백신 수급 상황에 맞춰 서신동을 시작으로 ▲노송동 ▲평화2동 ▲삼천3동 ▲진북동 ▲인후1동 ▲인후3동 ▲송천1동 ▲송천2동 ▲여의동 ▲중화산·2동 등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이들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지역 노인들에 대한 접종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75세 이상 노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송차량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동별 지원인력을 통해 백신접종자의 이상반응 관리 및 대응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063-288-5056~5065, 5607~5616)를 운영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금선암 자비공덕회 “미안마 민주항쟁 지지·보탬 되길”

민주화지지 성금 1000만원 전주시에 기탁

모약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인 금선암의 신도들이 미안마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금선암 자비공덕회(회장 김용상)는 6일 전주시장실을 방문해 미안

마 민주화지지 성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자비공덕회 회원들이 마련한 성금은 전주시와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미안마 민주화 지지를 위한 연대조직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선암 자비공덕회는 지난해 9월에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금선암 신도는 “연일 목숨을 건 민주화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미안마 현직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나눔을 결심하게 됐다”면서 “미안마 민주항쟁을 계속해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금선암 자비공덕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안마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금선암 자비공덕회(회장 김용상)는 6일 전주시장실을 방문해 미안마 민주화지지 성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지원 방안 모색

전주시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지원단 회의·상담역량강화연수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6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전주시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지원단 회의 및 상담역량강화연수'를 실시했다.



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정주영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를 감사로 초청해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긴급 상

황 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을 진행했다.

임은실 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 같다”며 “1388 청소년지원단이 갖고 있는 자원과 재능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청소년을 위한 마음 하나로 전주시청소년안전망 1388 청소년지원단으로서 역할을 특목히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본 센터가 허브기관으로서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올해 일반택시 60대 줄인다

택시감차위원회 열어 감차보상금 대당 2950만원 결정... 과잉공급량 지속 감차

전주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여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최근 2021년 제1차 전주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올해 일반택시 60대를 감차하고, 감차보상금을 대당 2,95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택시 감차는 지난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운영 결과 전주시에 인가된 택시 3,860대 중 588대가 공급과잉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택시감차위원회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과잉공급량의 60%까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과잉공급량의 40%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택시 감차사업을 통해 자가용 증가로 인한 승객 감소와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경영 활성화를 돕고 택시 서



전주시는 6일 제1차 전주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올해 일반택시 60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하고 감차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택시의 적정한 공급을 유지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의 재정 상태와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이를 계기로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맞춤형 전주야호부모교육 온라인 진행

전주시가 대학생과 임신부, 영유아 부모, 초등학생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부모교육을 준비했다.

시는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정유진),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 등과 함께 4월 한 달간 총 14회의 전주야호부모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오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권선이 세움가족연구소장을 초청해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교

육에서는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를 성장하는 기회로 만드는 적극적인 부모역할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오는 19일과 21일, 23일 오전 문수호 부모마음 충전소 대표와 함께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교방법, 신생아 돌보기, 아기발달과 양육민감성 등을 가르쳐주는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전북대학교 학생과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펼친다. 또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

성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모교육도 운영한다.

전주야호부모교육 일정 및 참여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야호부모교육 홈페이지(www.jonju.go.kr/yaho)에서 확인하거나 전주시 여성가족과(063-281-5029)로 문의하면 되며, 교육 신청은 부모교육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신명애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시민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